

經濟發展，初期條件 및 農工均衡發展

——後進國經濟의 自立的 發展을 中心으로——

金 大 煥*

| <目次> | |
|-----------------------|-------------------|
| I. 序 言 | III. 經濟發展과 農工均衡發展 |
| II. 經濟發展과 初期條件 | 1. 經濟發展理論의 批判的 檢討 |
| 1. 經濟發展에 있어서 初期條件의 意義 | 2. 初期條件과 農工均衡發展 |
| 2. 後進國經濟發展의 初期條件 | 3. 經濟發展과 農工均衡發展 |
| 3. 初期條件의 一般化 | IV. 結 語 |

I. 序 言

오늘날의 大部分의 後進國에 있어 經濟發展은 開發意志에 의해 계획적으로 推進되고 있다. 經濟發展의 成就與否는 곧 國家의 死活과 同一視될 만큼 重要하고 이에 따라 理論의 關心도 대단하다. 그러나 各國의 相異한 與件은 經濟發展의 一般理論을 낳지 못하게 하고 있는 實情이다. 論者의 觀點에 따라 後進國의 經濟發展은 樂觀的이기도 하고 悲觀的인 것 이기도 하다. 그러나 經濟發展의 理論的 課題는 樂觀과 悲觀의 選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兩者가 極을 이루는 帶의 가운데 있는 現實을 정확히 파악하여 所望스런 方向으로 이끌어 가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

政策的이고도 實踐的인 문제로서의 經濟發展의 問題는 그 속에 發展方向의 設定이라는 當爲的인 側面과 그 成就를 위한 戰略의 選擇이라는 問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바탕이 되는 初期條件의 分析이라는 作業을 필요로 한다. 물론 經濟發展의 方向은 구체적인 歷史條件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보다 폭넓은接近을 要請하는 것이지만 發展의 前夜에 주어진 狀況 즉 初期條件이 바로 이러한 歷史的 條件의 集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初期條件를 정확히 分析·理解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基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初期條件

* 서울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博士課程, 啓明大學 專任講師

(1) 뛰르달은 「……樂觀主義(optimism)나 悲觀主義(pessimism)는 偏見에 불과하다.……우리들이 追求하여야 할 것은 現實主義(realism)이다」라고 하였다. *The Challenge of World Poverty: A World Anti-Poverty Program in Outline*, Pantheon Books, 1970, p. 44.

은 經濟發展方向의 決定 혹은 制約要因이 된다는 점에서 重要할 뿐만이 아니라 發展戰略이 이 初期條件을 延長・擴大의 대상으로 하여 취해지느냐 아니면 克服・改革의 대상으로 삼느느냐에 따라 결국 發展의 方向은 정반대를 指向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이 兩者는 循環的 因果關係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經濟發展의 戰略은 우선 各國 初期條件의 特殊性에 따라 적절하게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各國의 初期條件에 共通性이 있다면 어느 정도普遍的인 方向의 設定과 戰略은 存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二次大戰 이후에 政治的 獨立을 획득한 오늘날의 後進國은 대단히 그 發展의 初期條件를 달리하고 있지만 과거 植民地로서의 歷史經驗을 겪었다는 점에서는 共通이다. 물론 이 共通點은 그 内部에 상당한 정도의 差異를 보이고 있지만, 自然的이고 非歷史的인 相異性 이상으로 重要한 共通點이다. 오늘날 이들 國家의 後進性의 根本原因을 帝國主義에 의한 植民地支配에서 찾는 것이 정당한 見解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事實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볼 때 이들 後進國도 반드시 전연 共通性이 없는 異質的 社會라고는 할 수 없으며⁽²⁾ 근본적이고 歷史的인 發展의 初期條件를 共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後進國經濟發展의 궁극적인 目標를 自立經濟에 두고 「自立的 生產構造의 確立」을 發展의 所望스러운 方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初期條件의 共通性에 대한 同意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³⁾

이렇듯 共通的인 初期條件으로부터 共通의 方向設定이 可能하다면 곧 發展戰略에 있어서도 原則的으로 대체적인 合意를 導出할 수 있는 바, 이는 戰後 오늘날까지 發展戰略의 點檢내지는 反省에서 더욱 明確해질 것이다. 戰後 後進諸國은 다소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우선 急速한 成長을 目標로 하고 그 手段으로서는 輕工業中心의 工業化의 戰略이 선택되었으며 「成長의 엔진」으로서 輸出擴大에 主眼點이 주어진, 한 마디로 外向的 工業化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政策의 基調는 戰後 後進國의 對內外的政治狀況과도 관련하여 高度成長이 政策의 最優先的인 目標로 설정됨으로써 이를 可能케 하기 위한 論理的 歸結로 보이는데 이는 또한 당시 成長欲求의 팽배와 稳定的 必要性에서 後進國의 條件에 비추어 보더라도 成長速度가 높은 農業을 經濟開發의 出發點으로 「삼기는 困難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하다는 見解에 의해 현재에도 상당히 강력하게 支持되고 있는 真정이다. 經濟發展의 궁극적인 目標가 物量의 成長 즉 總量經濟의 擴大에 있다면 이러한 政策基調와 그 理論的 기초에 대해선 더 이상의 論議가 不必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問題는 植民地라는 歷

(2) Paul A.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Monthly Review Press, 1957, pp. 136-7.

(3) 邊衡尹, 「民族革命型開發政策에로의 轉換」, 『政經研究』, 1971年 12月.

史의 經驗을 겪는 동안 철저하게 構造的으로 歪曲되어 獨自의인 發展의 脈이 끊어진 後進國經濟를 구체적인 對象으로 한 後進國의 經濟發展은 歪曲의 度를 深化시키는 物量成長의 極大化가 아니라 國內分業에 기초한 自律的・自己完結的 再生產構造를 그 내용으로 하는 自立經濟의 確立이라는 構造的인 側面에 開發目標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 過程은 우선 植民地의 遺產으로 주어진 初期條件인 植民地的 經濟構造의 철저한 打破 즉 制度的改革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⁴⁾ 이에 대해서 成長政策을 合理化하는 견해는 우선 成長을 圖謀한 다음 어느 段階에 가서 構造的인 發展으로 정책의 主眼點을 轉換할 수 있으며 成長이 없이는 發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얼핏 보면 論理的으로는 매우 정당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經濟發展이라는 것이 論理의 精巧化가 아닌 現實의 문제이며, 人間을 떠난 物量의 문제가 아니라 利害關係를 가진 社會經濟의 문제임을勘案한다면 이들의 主張은 現실적 矛盾의 結晶體임을 쉽사리 看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政策이 다 그러하듯이 經濟development政策은 그 추진과정에서 社會構成員의 集團的・階層的 利害關係와 밀접히 관련되어 때로는 이를 發生, 抑壓 혹은 變化시키며 오늘날 대부분의 後進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特定階層의 利益을 배타적으로 強化시키는 役割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成長을 최우선 목표로 한 開發政策이 制度的改革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는 發展優先으로 轉換될 수 있는 단계가 반드시 到來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혹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現實的으로는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한 가능성은 成長의 利害와 發展의 利害가 완전히 合致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발견될 수 있을 뿐으로 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後進國의 경우 兩者가一致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낳게 하고 있다. 지난 동안 後進國의 開發過程은 당초 利害關係의 延長이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合致될 可能性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이렇게 볼 때 「先成長・後發展」의 論議는 그 現실적 矛盾이 명백해진다. 또한 論理的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論議의 正當性은 인정하기가 힘들다. 成長이 發展에 기여하는 측면과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成長을 통해서만이 發展이 가능하다는 것은 논리를 너무 극단화시킨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制度的整備 및 改革을 통한 發展에 의하여 成長이 促進될 수 있는 것이다.⁽⁵⁾ 물론 경우에 따

(4) 이에 대해서는 Maurice Dobb, *An Essay on Economic Growth and Planning*, Routledge & Kegan Paul, 1960, p.7; do., *Some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Three Lectures* (Occasional Papers No.3, Dehli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Dehli, 2nd ed., 1955, p.37; Paul A. Baran, *op. cit.*; 尾崎彦誨, 「低開發國政治經濟論の課題」, 尾崎彦誨編著, 『低開發國政治經濟論』, ミネルヴァ書房, 1968, p.27; 朴玄採, 「階層調和의 條件」, 『政經研究』, 1969年 11月號, pp.79-80; 趙容範, 「低開發國近代化의 經濟的內容과 國民經濟의 自立化」, 『友石文理大法政大論文集』, 第二・三合輯, 1969.

라 어느 時點에 있어서는 發展努力이 成長成果를 일시적으로 沮害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成長이 더욱 加速化되어 發展을 缺한 바탕 위에서의 成長은 더욱 더 強力하게 發展을 가로막는 方向으로 作用하는 것이 틀림없다.

요컨대 많은 경우 오늘날 後進國의 經濟開發은 <初期條件의 克服보다는 延長線 위에서의 量的인 擴大→發展보다는 成長→農業보다는 工業>으로 要約될 수 있는 論理體系⁽⁶⁾에 의하여 그 方向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論理體系는 그 자체로서는 首尾一貫한 것이지만 初期條件에 대한 觀點이나 態度가 다를 경우에는 완전히 瓦解되어 버리고 만다.

本稿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선 後進國經濟發展의 初期條件을 검토하여 共通性을 찾은 다음 이러한 共通的인 初期條件이 克服・改革의 對象임을 명백히 하고, 이의 克服・清算을 통한 自立經濟의 確立이 곧 後進國의 진정한 經濟發展過程이라는 일반적인前提下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發展戰略은 農工均衡發展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後進國經濟發展에 있어 既存의 論理體系가 再構成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데 本稿의 目的이 있다.

II. 經濟發展과 初期條件

經濟發展의 初期條件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初期條件이란 무엇이며 經濟發展에 있어서 가지는 意味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後進國經濟發展의 初期에는 어떠한 條件이 주어져 있고, 과거 先進國과는 어떻게 다르며 각각 相異한 歷史를 가진 後進諸國의 同一하지 않은 이러한 初期條件은 그리면서도 어떠한 一般的인 性格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차례로 考察해 보기로 하자.

1. 經濟開發에 있어서 初期條件의 意義

經濟發展에 있어 初期條件(initial conditions)이라고 하는 것은 經濟發展의 出發時點에 당초 주어졌던 自然的・社會經濟的 諸與件을 말한다. 물론 이 외에도 政治的・文化的・心理的

(5) 바란, 둘 뿐만이 아니라 뒤르달, 그리고 오늘날 많은 理論家들이 이러한 見解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특히 뒤르달은 76年 5月 日本의 大阪商工會議所에서 행한 「開發途上國의 開發이란 무엇인가?」라는 題下의 講演에서 「農地解放 및 土地制度改革 등에 의하여 農業勞動者에 増產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開發途上國의 農業生產은 현재의 倍로까지 提高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日本經濟新聞』, 1976年 6月 6日字 참조).

(6) 이 論理體系를 좀 더 연장시켜 보면 <……內需產業보다는 輸出產業→中小企業보다는 大企業→經濟의 對外依存 및 不平等의 深化>가 될 것이다.

條件들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歷史的으로 社會經濟的 與件속에 溶解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發展의 初期에 주어진 與件들은 經濟發展의 方向과 戰略, 그리고 그 成就度에 基本的인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하면 經濟發展을 條件지운다는 의미에서 初期條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概念은 空間的으로는 모든 것을 包括하고 있다. 自然的・社會的・歷史的 條件에 있어서도 對內外的인 與件들을 모두 포함하고 특히 先進國과 後進國, 그리고 一國과 他國과의 比較라는 觀點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는 時間概念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時間的으로 明確하게 規定될 수는 없는 것 같다. 특히 經濟發展을 연속적인 進化(evolution)의 과정으로 파악할 때는 出發時期의 選擇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英國의 產業革命과 같이 出發時期에 대해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할 경우 그 初期條件도 염밀하게는 달리 規定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⁷⁾ 그러나 經濟發展을 開發意志에 의한 開發(development)의 과정으로 보면 初期條件의 時間的 規定은 그다지 難題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정도의 期間이 있더라도 急激한 變動이 없는 한, 대체로 同一한 條件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先進國에 속하면서도 英國과는 달리 위로부터의 產業革命이 이루어진 獨逸의 경우 1840年 產業革命이 시작되기 前夜의 社會經濟的 與件을 初期條件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며⁽⁸⁾ 오늘날 後進諸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經濟開發計劃의 有無에 관계없이 일단 先進列強의 植民地支配로부터 벗어난 世界二次大戰 직후의 狀況이 바로 初期條件이 되는 데는 疑問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狀況 가운데는 각국의 서로 다른 自然的 條件과 歷史的 條件에서 由來한 것이 있는 만큼 後進國一般에 적용될 수 있는 共通的 初期條件를 導出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初期條件의 空間的 規定과도 관련된 現實認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⁹⁾

앞에서 經濟發展에 있어서 初期條件은 空間的으로 모든 與件을 망라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無差別하게 나열해 놓으면 오늘날 後進諸國의 初期條件에 대한 一般化

(7)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p. 38-9; Phyllis Dean,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Cambridge, 1965, pp. 2-4; T.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1948; J.U. Nef, "The Progress of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Large Scale Industry in Great Britain," *Economic History Review*, No. V., 1934. 한편 토인비는 그의 著書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England*에서 英國의 產業革命을 斷續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8) H.J. Habakkuk & M.M. Postan, eds.,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VI, Cambridge, 1965, pp. 15-7 및 金宗炫, 「工業化의 諸條件와 戰略에 관한 比較史的研究」, 『經濟論集』, 1971年 6月號, p. 15.

(9) 初期條件은 現實의 客觀的 條件이라는 점에서 로스토우의 跳躍을 위한 先行條件(pre-conditions for take-off)과는 전연 다르다.

는 불가능해지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後進國 相互間의 多樣性과 相異한 性格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沮害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一般化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可能할 것이다. 이는 各國마다의 初期條件에 나타난 다양한 社會經濟的 現象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歷史的 源泉을 찾고, 또 보다 重要하고 本質的인 條件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가운데서 共通點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여 後進國經濟發展의 初期條件를 정확히 究明함으로써 이에 부응한 發展方向과 戰略의 설정이 가능하고 그러할 때 라야만 이들은 現실적이고 타당한 것이 될 수 있다.

經濟發展에 있어서 初期條件의 重要性은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強調될 필요가 있다. 戰後 오늘날까지 대부분 後進國의 經濟開發이 初期條件를 전연 質的으로 달리하는 先進國의 現實에 토대를 둔 理論과 戰略의 適用을 받음으로써 사실은 發展과는 反對의 方向을 걸어 왔다는 事實을 생각할 때 初期條件를 기반으로 하여 後進國 자신의 實情에 맞는 政策樹立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지는 것이다. 初期條件를 無視한 經濟開發은 진정한 發展을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데에 문제의 深刻性이 있다. 특히 初期條件이 克服 및 改革의 對象이 되어야 하는 경우의 이러한 無分別한 政策은 오히려 改革沮止의 作用을 하며 發展의 強力한 障碍要素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錯誤的 政策이 시행되는 것은 戰後 國際力學關係에서 나온 것일지만 오늘날 後進國은 진정한 經濟發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것마저 初期條件으로 인식하여(물론 이와 결부된 國內條件도 마찬가지이다) 克服의 對象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以上에서 初期條件이 經濟發展에 있어 기본적으로 重要함을 알았다. 따라서 初期條件를 정확히 그리고 명백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擴大의 대상으로 하느냐 克服의 대상으로 하느냐의 態度가 經濟發展의 方向을 一次的으로 規定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므로 우리는 오늘날 後進國經濟發展의 初期條件이 어떠한 것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態度로 임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2. 後進國經濟發展의 初期條件

後進國이 經濟發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初期에 주어진 條件은 매우 不利한 것이었다. 뷔르달은 「……後進國은 오늘날의 先進國이 과거에 직면하였던 것보다 훨씬 큰 困難에 부딪치고 있다」⁽¹⁰⁾고 하였으며 金宗炫教授는 19世紀의 後進國(獨逸, 日本, 프랑스, 美國 등 오늘날의 先進國)과 20世紀의 後進國이 經濟發展의 始初에 처하였던 歷史的 條件을 比較 檢

(10) G.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Duckworth, 1957, p. 82.

討한 다음 그條件이 더욱不利하였다고結論깃고 있다.⁽¹¹⁾

이러한不利한條件들은 대부분의 경우後進國의特徵 혹은後進性의原因으로指摘되고 있는데, 라이벤슈타인(H. Leibenstein)은 다음과 같이 이를 크게 네 가지範疇로區分하고 있다.⁽¹²⁾

① 經濟的範疇: 이는 또 두種類로區分된다.

i)一般的特徵: 高率의 農業人口, 農業部門에 있어서의 절대적過剩人口, 僞裝失業, 資本의 貧弱, 低所得, 거의零에 가까운貯蓄, 地主階層에 의한非生產的貯蓄, 一次產業爲主, 낮은 영양상태, 높은Engel係數, 一次產品輸出, 商品去來의 過少, 金融制度 및 市場의 貧弱, 보잘것 없는住宅

ii) 農業: 農地所有의 영세성, 農業技術의 低位, 近代的 農產物流通의不足, 收穫提高에 급급한 결과 農地의 荒廢化, 높은負債率, 非效率的 生產方法, 農地不足의 加速化

② 人口生態學的範疇: 높은出生率과死亡率, 낮은영양상태 및 보잘것 없는食事, 빈약한健康狀態, 非衛生的環境

③ 文化的・政治的範疇: 높은文盲率, 幼年勞動, 中產層의脆弱 혹은不在, 女性的 낮은社會的地位, 傳統的價值觀

④ 技術 및 기타: 낮은土地生產性, 技術訓練의 不在, 非效率的交通通信施設, 조잡한技術

이렇게 라이벤슈타인에 의해 망라되고 있는諸條件 가운데서經濟發展과 관련하여經濟學者들은 각각 나름대로의觀點에서重要하다고 생각하는條件들을強調하고 있다. 즉 히긴스(B. Higgins)는所得水準의低位를⁽¹³⁾ 너크세(R. Nurkse)는人口와天然資源에비한資本裝備의不足을⁽¹⁴⁾ 바이너(J. Viner)는人口 및資本不足에관련된條件을⁽¹⁵⁾ 각각 강조하고 있으며 루이스(A. Lewis)는 ①技術不足 ②不適合한制度 ③資本不足 ④資源利用의不足 등을指摘하였다. G.H. Meier 역시資本不足과人口過剩에더하여經濟組織의非效率性을不利한條件으로강조하고 있다.⁽¹⁶⁾ 한편「植民地社會學者」⁽¹⁷⁾로 불리우는부

(11) 金宗炫, 前揭論文, p. 44.

(12) Harvey Leibenstein,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1957, pp. 40-1.

(13) B. Higgins, *Economic Development: Principles, Problems and Policies*, W.N. Norton & Co., 1956, pp. 21-3.

(14) Ragna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asil Blackwell, 5th ed., 1957, p. 1.

(15) Jacob Viner, "The Economics of Development," reprinted in A.N. Agarwala & S.P. Singh, eds.,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p. 9-13.

(16) Gerald M. Meier, "The Problem of Limited Economic Development," reprinted in *ibid.*, p. 56 및 p. 61.

(17) 世界經濟調查會刊,『後進國開發の研究』, 世界經濟調查會, 1964, p. 208.

케(J.H. Boeke), 프란겔(S.H. Frankel), 퍼니발(J.S. Furnivall) 등 이론과 社會經濟學의 接近論者들은 무엇보다도 經濟의 二重構造, 그리고 傳統擁護精神과 자본주의적 정신의 결여 등이 오늘날 後進國의 初期條件으로서 기본적으로 不利한 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周知의事實이다.⁽¹⁸⁾ 이에 대하여 도브(M. Dobb), 바란(P. Baran), 베틀하임(C. Bettelheim) 등 政治經濟學의 接近方法을 취하고 있는 學者들과, 이들과는 다소 傾向을 달리하고 있지만 非經濟的 要因의 배제를 拒否하는 뷔르달은 後進國이 겪었던 植民地로서의 歷史經驗에 注目하여 後進國의 初期條件가 先進國의 과거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不利한 것은 植民地下에서 形成된 經濟構造 및 制度의 歪曲에 있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음도 이미 잘 알려진 事實이다.⁽¹⁹⁾

이렇듯 後進國은 經濟發展의 初期條件에 있어서 先進國과는 相異하고 또 不利하기 때문에 後進國의 經濟發展은 오늘날의 先進國의 經濟發展을 시작할 때 보다 훨씬 어려운 狀況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이러한 不利한 條件들과 대비하여 後進國은 經濟發展의 初期에 있어 과거 先進國들보다도 有利한 條件에 치해 있는 측면도 無視할 수는 없다. 쿠즈네츠(S. Kuznets)는 오늘날 後進國의 有利한 條件으로서 ① 技術 및 革新의 分野에서의 知識과 經驗의 蕩積과 ② 發展된 國家의 數 및 그 經濟的 成就의 擴大를 들고 있는데⁽²¹⁾ 특히 이중에서 先進技術의 利用可能性이라는 것은 異口同聲으로 有利한 條件으로 들추어지고 있다.⁽²²⁾ 그러나 先進技術의 利用은 반드시 有利한 條件만은 아니다. 우선 先進國에서 開發된 技術은 國內의 在來技術과 連關이 없거나 현격한 갭이 있으며 많은 경우에 서로 對立의이며 본질적으로 이러한 技術은 對外指向的 性向을 가지고 있으므로 陳列臺의 商品처럼 마음대로 選擇할 수 있는 것이

-
- (18) J.H. Boeke, *The Interests of the Voiceless Far East: Introduction to Oriental Economics*, 1948; do., *Economics and Economic Policy of Dual Societies*, 1953; S.H. Frankel, *The Economic Impact on Underdeveloped Societies: Essay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Social Change*, Oxford, 1953; J.S. Furnivall,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1962. 그리고 이들의 停滯的 後進國認識態度에 대한 批判으로서는 小段文一, 「社會經濟學派開發論의 批判的考察」, 松井清編, 『後進國開發理論の研究』, 有斐閣, 1962.
- (19) P. Baran, *op. cit.*; M. Dobb, *op. cit.*; Charles Bettelheim, *Problemes théoriques et pratiques de la planification*: 奧澤篤次良譯, 『經濟計劃の理論』, 東洋經濟新報社, 1956; G. Myrdal, *op. cit.*
- (20) G. Myrdal, *The Challenge of World Poverty: A World Anti-Poverty Program in Outline*, Pantheon Books, 1970, pp. 39-40.
- (21) Simon Kuznets, *Economic Growth and Structure: Selected Essays*, 1965, pp. 177-55.
- (22)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Frederick A. Praeger Inc., 1962, p. 8; G. Myrdal, *op. cit.*, pp. 40 및 do.,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Twentieth Century and Pantheon Books, 1968, p. 20 (Prologue, Sec. 6).

아니기 때문이다. 뒤르달도 先進技術利用의 有利性은 割引되어 생각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理由를 ① 우선 技術的인 측면에서, 先進國에서 開發된 技術은 後進國에서의 相異한 要素集約度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그 適用 및 成果에 限界가 있으며 ② 後進國은 그 技術이 필요로 하는 產業構造가 缺如되어 있으며 熟練이 不足하다는 데 두고 있다.⁽²³⁾ 이에 덧붙여 그는 이러한 技術은 後進國의 發展前途를 制約하는 效果가 있음을 경고하였다.⁽²⁴⁾ 사실 技術이란 것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產業組織 나아가서는 社會體系(social system)와 結合되어作用하는 것이기 때문에 先進技術의 導入은 전연 條件이 다른 後進國의 產業 및 經濟構造를 變型시키고자 하는 效力を 發揮한다. 또한 技術利用과 관련하여 注目하여야 할 것은 先進國이 開發된 技術을 後進國에 傳播하는데 매우 인색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戰後 先進國이, 製品壽命週期說(product life cycle theory)⁽²⁵⁾이나 技術gap理論(theory of technological gap)⁽²⁶⁾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은 貿易上의 優位의 減少 내지는 地位의 轉換을 막기 위해, 技術保護의 動機에서도 多國籍企業을 後進國에 進出시켜 온 지금까지의 事情에서도 여실히 立證되고 있다.⁽²⁷⁾

그러나 이러한 發展의 初期條件은 有利한 것인든 不利한 것인든 後進國 모두에 同一한 것은 결코 아니다. 「20世紀의 後進國은 19世紀의 後進國(오늘날의 先進國：筆者註)에 對해서는 물론 그들 相互間에 있어서도 異質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둘어서 하나로 다룬다는 것은 매우 困難한 일이다. 事實 오늘날의 後進國開發論이 無數히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一般理論에 到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事情에 그 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²⁸⁾ 앞에서 본 初期條件 가운데는 國家에 따라서는 전연 해당되지 않거나 정반대를 보이는 條件들도 있을 것이며 대체로 後進國은 그 初期條件이 相異한 것이 오히려 一般的의 일론지도 모른다. 뒤르달은 先進國과의 初期條件의 差異로서 낮은 經濟水準, 合理性이缺如된 態度, 非統一的 制度, 勞動生產性의 低位, 人口狀態 및 資源賦存의 差異, 科學的 思

(23) G. Myrdal, *The Challenge of World Poverty*, p.40.

(24) *Ibid.*

(25) R. Vern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26) W. Gruber, D. Mehta & R. Vernon, "The R & D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of United States Indus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February 1967 및 G.C. Haufbauer, "The Impact of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y on the Commodity Composition of Trade in Manufactured Goods," *The Technology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0.

(27) K. Friedrich, *International Economics*, McGraw-Hill, 1974, pp.137-141.

(28) 金宗炫, 前揭論文, p.40.

考 및 技術의 不足, 資本調達의 困難, 後發者로서 植民地不保有 등을 指摘하고⁽²⁹⁾ 그러나 이것은 後進國間에도 差異가 있는데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비하여 라틴아메리카는 政治的獨立의 역사가 장구하다는 점에서 우선 큰 差異가 있다고 하였다.⁽³⁰⁾ 확신히 오늘날의 先後進國間에는 과거 產業革命時期의 先後進國間과는 달리 程度의 차이나 量的인 차이로 還元될 수만은 없는 初期條件上의 質的 差異를 가지고 있으며 後進國相互間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後進國의 經濟發展은 그들 자신의 初期條件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初期條件의 特殊性만을 강조하여 後進國各者의 經濟發展이 서로 전연 다른 樣相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先進國과는 전혀 異質的인 初期條件를 가지고 있으므로 發展의 論理를 달리 할 수 밖에 없지만⁽³¹⁾ 後進國 상호간의 初期條件의 差異는 그 중에는 程度의 差異에 不過한 것도 있고 現象의으로는 異質的으로 보이더라도 根源的으로는 同質의 것도 있으므로 共通分母를 도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抽象化를 통하여 後進國經濟發展에 있어 初期條件의 一般化가 상당한 정도로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一般化는 理論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認識의 問題에 있어서도 꼭 必要한 것이다.

3. 初期條件의 一般化

後進國一般의 初期條件은 어떻게 規定될 수 있는가? 우선 靜態的으로는 전반적으로 經濟水準이 매우 낮아 先進國과는 커다란 隔差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指摘될 수 있겠다. 後進國相互間에, 경우에 따라 程度의 차이는 있지만 所得, 技術, 資本을 비롯한 전반적인 經濟水準이 낮은 것은 共通의 初期條件이다. 다음으로는 動態的인 觀點에서 보아 經濟發展의段階가 뒤떨어져 있는 것은 共通이다. 물론 엄밀하게는 後進國間에도 發展段階의 差異가存在하고 있지만 대체로 모두가 低位의 發展段階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規定은 박연한 것이며 實相에 대한 條件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아무런 具體的인 內容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先進國이 과거 發展初期에 쳐하였던 條件과도 하등의 質的 差異를 보여주지 못한다. 經濟水準이 낮은 것은 과거 先進國도 그러하였으

(29) G. Myrdal, *op. cit.*, pp. 29-30 및 do.,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pp. 82-3, p. 98, p. 126.

(30) G. Myrdal, *The Challenge of World Poverty*, pp. 31-2.

(31) 이는 先進國의 과거 경験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전연 없다는 것이 아니라, 產業革命을 완료한 지 100年 이상이나 된 오늘날 先進國의 현재의 發展論理가 이제 發展을 시작하고 있는 後進國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自立的 發展을 이룩한 先進國의 發展出發期에 있어서의 歷史的 經驗은 自立經濟를指向하고 있는 오늘날의 後進國에게 어느 정도 教訓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經濟發展段階가 뒤떨어져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事實的인 記述에 불과할 뿐이다. 이 러한 것들을 初期條件으로 하여 論議를 展開시키게 되면 發展戰略에 있어서도 先進國과 다른 것을 도출할 수가 없으며 또 그럴 必要도 없게 되고 만다. 이경우 經濟水準이 낮다는 것과 發展段階가 低位에 있다는 것은 同意反復이 되고 平面的・量的인 問題로서 時間의 경 과에 따라 發展段階가 높아지며 이에 따라 經濟水準도 向上될 것이라는 지극한 樂觀主義를 그 바탕에 깔고 있을 뿐 아니라 發展의 길은 先進國의 先例에 따르는 方法 밖에 없다는 結論으로 強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²⁾ 우리는 이러한 現象的인 條件의 原因을 宪明함으로써 發展論의 意味를 갖는 質의이고 構造的인 측면에서의 初期條件를 밝히고, 後進國內部 的인 條件에만 局限시키지 말고 後進國이 發展初期에 직면한 世界經濟構造까지 初期條件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兩者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때마다 初期條件의 一般化가 意味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後進國의 後進性(經濟水準 및 經濟發展段階가 낮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의 根本原因是 先進資本主義諸國이 오늘날의 後進國을 그들의 植民地로 하여 帝國主義의 罪惡을 恣行한 테에 있다.⁽³³⁾ 즉 오늘날 後進國의 後進性은 「……결코 우연의 災難 또는 各國 國民의 어떤 人種的 特殊性에 彙着시킬 수 있는 問題는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西歐의 發展本性 그기에 의하여 決定지워진 것이다.」⁽³⁴⁾ 後進國은 植民地支配에 의하여 自立的인 經濟發展의 要因이 成熟되기 전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당하고 植民母國經濟의 한 附屬物로 固定됨으로써 跛行的인 植民地的 經濟構造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後進國이 植民地의 遺產으로 물려받은 植民地的 經濟構造는 後進國의 自立的 經濟發展을 制約하는 가장 重要한 條件으로서 後進國經濟發展에 있어 가장 核心的인 初期條件이 되는 것이다. 낮은 經濟水準, 發展의 落後性, 그리고 人口・技術・資本 등에 있어서의 不利한 條件도 궁극적으로 여기로부터 基因한다. 이러한 植民地的 經濟構造는 오늘날 後進國 모두가 植民地로서의 歷史的 經驗을 가졌기 때문에 共通的으로 가지고 있는 初期條件인 것이다. 물론 植民地的 經濟構造라고 하더라도 그 類型에 따라 區分이 可能할지도 모르지만⁽³⁵⁾ 그 本質은 큰 差異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오늘날 後進國의 經濟發展에 있어 初期條

(32) 이러한 樂觀主義는 後進國을 격려한다는 측면은 있을 지 모르나 이와 같은 無分別한 樂觀主義는 결국 幻想으로 이끄는 役割을 한다. G. Myrdal, *op. cit.*, p. 44.

(33) P. Baran, *op. cit.*, Chap. 5.

(34) *Ibid.*, pp. 140-1.

(35) 大塚久雄은 後進資本主義의 類型이라 하여 이를 ① 跛行的 經濟構造 ② 國民經濟缺如型 ③ 모 노컬추어型으로 區分하고 있다. 大塚久雄, 「後進資本主義とその類型」, 大塚久雄編, 『後進資本主義の展開過程』, アジア經濟研究所, 1973, pp. 22-30.

件으로一般化하는 데는 無理가 없을 것이다. 이는 또 經濟發展이 前近代的 社會體制 혹은 舊制度의 打破를 그前提를 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더라도 과거 先進國이 打破의 對象으로 하였던 體制는 封建制度였으나 오늘날 後進國의 그것은 이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質的인 差異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³⁶⁾ 後進國이 自立的 經濟發展을 成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初期條件이 克服의 對象이 된다는 것은 再言을 요하지 않는다.

또 하나 重要한 初期條件으로서는——물론 이것 역시 植民地의 經濟構造와 歷史的 脈을 담고 있는 것인지만——오늘날 後進國이 처하고 있는 世界經濟構造的 條件이다. 戰後 後進國은 植民地의 支配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世界經濟의 再編成으로 表現되는 狀況下에서 완전한 獨立을 하지 못하고 先進國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으로써 經濟的으로 從屬關係에서 완전히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의 自立的 經濟發展의 追求는 先進國의 利害에 의해 制約받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을 發展의 初期條件으로 가지고 있다.⁽³⁷⁾ 外國貿易의 不利한 條件, 先進國의 利害에 입각한 國際分業, 發展의 限界 등은 이러한 初期條件의 制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뒤로남도 後進國이 처하고 있는 이러한 對外的 與件을 重視하여 이러한 條件下에서 先後進國間의 不平等이 深化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³⁸⁾ 그는 오늘날 後進國經濟發展의 初期條件를 ① 自然資源의 不足 및 이에 대한 所有權의 脆弱 ② 不利한 氣候條件 ③ 稠密한 人口 및 急速한 人口成長 ④ 國際貿易을 中心으로 한 世界經濟構造 등으로 整理하고 그 하나하나를 檢討한 다음 이중에서도 마지막 條件이 가장一般的이고 重要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⁹⁾ 즉 後進國은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低廉하게 資本을 구하기도 힘들고⁽⁴⁰⁾ 「成長의 엔진」으로서 貿易을 發展의 原動力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條件에 처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과거 先進國이 產業革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本蓄積을 植民地를 保有하고 이들과의 有利한 交易에 의하여 할 수 있었던 데 반하여⁽⁴¹⁾ 오늘날의 後進國은 先進國에 둘러싸여 「南北問題」의 畏害를 받음으로써 오

(36) 金宗炫, 前揭論文, pp. 42-3. 물론 오늘날 後進國이 打破의 對象으로 하는 것은 植民地의・封建的 殘滓라는 二重의in 것이나 이兩者는 오늘날 後進國에서 運命을 같이 하는 것이다.

(37) 大内兵衛・内坂逸郎, 『現代の世界經濟と國際關係』, 河出書房, 1971; 松井清, 『戰後の世界經濟』, 日本經濟評論社, 1969; 森田桐郎, 『南北問題』, 日本評論社, 1968; 岡倉古志郎, 『アジア・アフリカ問題入門』, 岩波書店, 1967; 岡倉古志郎・蠟山芳郎 編著, 『新植民地主義』, 岩波書店, 1964.

(38) G.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p. 60; do., *An International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Harper & Row, 1956, Chap. 12.

(39) G. Myrdal, *The Challenge of World Poverty*, pp. 32-9.

(40) 이는 Gerschenkron이 近代工業化의 先行條件으로 든 「資本의 利用可能性」(availability of capital) 을 充足시킬 수 없는 條件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A. Gerschenkron, *op. cit.*, Chap. 2, 특히 pp. 32-3.

(41) 註 (32) 참조

허려發展이抑制당하는 것을 볼 때 그初期條件이 전연判異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後進國은 과거先進國에비하여 전연비고가 안되는不利한對外的關係를 그初期條件으로하고 있는 것이다. 世界에發展된國家의數가 많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러한 면에선不利한條件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先進國에의한國際的展示效果(international demonstration effect)가 이에加重되고 있는 실정이다.⁽⁴²⁾

요컨대 오늘날後進國의經濟發展의初期條件으로 가장重要하고本質的인 것은跛行的인殖民地的經濟構造와新殖民地主義의樣相을 보이고 있는世界經濟의環境이라고 할 수 있다. 資本不足, 낮은生活水準, 過剩人口, 貿易不振…… 등등은 모두 이로부터由來한 것이다. 後進國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初期條件은不利한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自立的經濟發展을 위해서는克服·清算의對象임이 분명하다.

III. 經濟發展과 農工均衡發展

우리는 이때까지의論議를 통하여後進國은 그들이처한不利한初期條件을克服하는것이곧self-dependent經濟發展으로나아가는길임을 알수있다. 그러면 이러한初期條件의克服은어떠한發展戰略으로써가능한것인가? 產業革命을통과한지적어도100년이경과된후의오늘날의先進國이그들의論理에따라後進國에勸告혹은요구하는發展戰略은後進國의不利한初期條件이溫存·強化될뿐자신의發展이될수없는것이라면後進國經濟發展은急速한工業化도國際分業에기초한農業一邊倒도될수없음이명확하다. 經濟의self-dependent發展은農工均衡을통해서만이可能한것이다.

이하에서우리는先進國에그根源을가진종래의經濟發展理論을批判的으로檢討하고 이를後進國의初期條件과관련지워생각함과동시에self-dependent經濟發展을이룩한先進國의과거歷史經驗을참고하여農工均衡發展이唯一한self-dependent經濟development의길임을살펴보기로하자.

1. 經濟發展理論의批判的檢討

오랫동안그리고많은경우에있어經濟發展은Industrialization과同一視되어왔으며後進國經濟發展의戰略과관련하여아직도이러한傾向이강한것이사실이다. 이와같은理論的傾向은특히戰後50年代中盤까지지배적이었는데그根本原因是무엇보다도戰後後進國의

(42) R. Nurkse, *op. cit.*, Chap. 3.

經濟發展에 대한 關心이 주로 先進國에 의해, 그리고 先進國의 立場과 必要에서 提高된 데서 찾을 수 있다.⁽⁴³⁾ 따라서 이들에 의한 後進國經濟發展의 문제는 진정한 意味에서 「發展」의 觀點에서가 아니라 自國의 資本制의 再生產構造의 安定 및 擴大라는 前提下에서 「成長」의 觀點에서 提起된 것이다. 이러한 類의 理論은 後進國은 一次的으로 所得水準과 生產水準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資本을 여러 부문에 配分할 것이 아니라 成長템포가 보다 급속한 工業을 戰略產業으로 삼고 이에 集中投資하는 工業化政策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이론바 不均衡成長論으로서 이 理論內에서는 農業은 단순히 공업부문에 대한 勞動供給源으로서의 役割로 제한되고 있다.⁽⁴⁴⁾ 50年代 後半부터 약 10年 동안에는 均衡成長理論이 제기되었는데 이 理論은 成長理論의 범주내에서는 前者와 큰 對照를 이루는 것이나 發展論의 관점에서는 마찬가지로 工業化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네시의 均衡成長論을 보더라도 農業部門의 僞裝失業을 이용하여 資本形成을 도모하고 이를 工業(실체로 勞動集約的 輕工業)에 投資하여 均衡된 成長을 이룩한다는 것으로⁽⁴⁵⁾ 農業의 發展이나 生產力向上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나 理論提示가 없다. 뿐만 아니라 네시 자신은 對外部門에 의한 成長에 대하여 대단히 好意的인 태도를 堅持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시의 리버랄리즘 역시 先進諸國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⁴⁶⁾

後進國經濟發展에 있어서 農業의 役割을 평가하고 農業開發을 주장하는 見解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너는 自由貿易의 기본원리인 比較優位에 입각한 後進國의 農業特化論을 내세웠으며⁽⁴⁷⁾ 루이스는 農業部門의 過剩勞動力を 활용하는 經濟發展모델을 전개하면서 農業의 生產力向上을 강조하였다.⁽⁴⁸⁾ 그러나 前者は 後進國의 工業發展을 전연 배제하는 것으로 後進國의 經濟構造를 모노컬처的인 것으로 固定시킴으로써 後進國經

(43) 「이러한 文獻의 대부분은 後進國自身의 利害에 出發點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先進國 혹은 그 集團의 國民的政治的 利害에서 그들의 문제를 보고 있다」(G.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p. 100).

이에 대해 독은 「……종래 유럽과 美國의 專門經濟學者들 사이에 행해진 論議는 어떤 틀린 도그마와 先入見으로 問題를 은폐시켜온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後進國이 당면한 經濟問題의 본질적 諸要點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效果를 가졌으며 또한 後進國의 獨立的인 發展을 억제하는 경향을 가졌다」고 喝破하고 있다. M. Dobb, *Some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小野一郎 譯, 『後進國の經濟發展と經濟機構』, 有斐閣, 第5刷, 1961. p. 7(日本版序文).

(44) 이 범주에 속하는 허쉬만은 輕工業으로부터의 着手를 권고하고 있다. A.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1961.

(45) R. Nurkse, *op. cit.*

(46) 木多建吉, 「近代經濟理論」, 尾崎彥削 編著, 前揭書.

(47) J. Viner,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st ed., 1953.

(48) W.A. Lewis,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reprinted in IER,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Development*, 1965.

濟를 先進工業國의 經濟에 종속시켜 自立的 再生產構造의 확립과는 반대의 길을 걷게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後者는 이와는 달리 工業化를 위해서는 農業部門에서의 生產力向上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는 意義가 있으나 본격적으로 農業生產力向上을 위한 論議에는 들어가지 않고 工業化의 條件으로서 過剩農業勞動力を 活用하는 모델을 動學化하였을 뿐이다. Fei-Ranis모델은 農業發展을 통한 轉換點(turning point)을 分析하고 農業技術進步를 통한 生產力向上과 農工兩部門의 相互作用에 의한 經濟發展을 主張하여 分析의 數學化, 精密化에 크게 기여하였다.⁽⁴⁹⁾ 한편 조겐슨(D. Jorgenson)은 僞裝失業의 存在를 부정하는 觀點에서 限界生產力說에 의거 分析하면서 後進國은 低均衡의 惡循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農業生產力의 向上을 통한 農業剩餘의 實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이와 동시에 農工兩部門에 있어서의 技術進步를 강조하였다.⁽⁵⁰⁾ 이들은 後進國經濟發展에 있어서 農業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注目을 끈다. 또한 민트(H. Myint)는 後進國經濟發展에 있어서 農工均衡成長을 주장하여 農業生產力向上을 위한 貨幣經濟, 市場메카니즘의 도입 등과 같은 經濟的 誘因의 제공을 역설하였다.⁽⁵¹⁾ 그의 이러한 農業開發方法論은 순수한 經濟的 유인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農工均衡成長論은 임밀하게는 農業과 消費財工業의 均衡成長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과는 接近의 角度를 달리하는 鮑은 後進國의 自立的 經濟發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制度의 改革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가 前面에 내세워 주장하고 있는 重工業優先의 工業化도 사실은 土地所有制度를 중심으로 한 農業制度의 變革을 통한 生產力提高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⁵²⁾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鮑은 적극적인 農工均衡發展論者라고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⁵³⁾

최근에 들어 近代經濟理論의 범주내에서도 經濟發展에 있어 農業의 役割을 강조하는 견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존스톤(B.F. Johnston), 멜러(J.W. Mellor), 파파네크(G.F. Papanek), 쏘顿(D.S. Thorton), 하야미(Y. Hayami), 그리고 루탄(V.W. Ruttan)등 이를 바 「新發展經濟學者」(new development economist)에 속하는 이들은 물론 저마다의 意見

(49) J.C.H. Fei & G. Ranis,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61, pp. 533-65; do., "Agrarian Du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in I. Adelman & E. Thorbecke eds., *The Theory and Design of Economic Development*, 1966; do., "Innovation, Capital Form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3,

(50) D.W. Jorgenson, "The Development of a Dual Economy," *Economic Journal*, June 1961, pp. 309-34.

(51) Hla Myint, *The Economic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Hutchison of London, 1964.

(52) M. Dobb, *op. cit.*

(53) 李槿哲, 「經濟發展과 農業에 관한 考察」, 『經濟論集』, 1974年 9月號, p. 155.

差異는 다소 있다 하더라도 工業化는 農業生產性의 向上으로써 가능하며 특히 後進國이 經濟發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初期局面에서 農業開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發展의 初期段階에서 效率적인 經濟發展의 戰略은 農業의 生產性向上을 유도하는 급격한 技術變化가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結論에 대체로 合意를 보고 있는 바, 그중에서도 하야미와 루탄⁽⁵⁴⁾은 農業生產力의 提高를 위한 技術進步의 과정을 그들의 「誘導的 發展모델」(induced development model)⁽⁵⁵⁾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理論의 展開는 곧 經濟發展에 있어서 主要關心이 工業一邊倒에서 점차 修正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反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쏘어베커(E. Thorbecke)는 「經濟學者와 政策立案者들의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農業의 役割에 관한 解釋가 과거 數年間 급격히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과거에는 農業을 發展過程에서의 소극적인 협력자로서 보았는데 지금은 農業을 전형적으로 工業部門과 同等이며 적극적인 부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⁵⁶⁾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10年前만 하더라도 經濟發展에 대한 工業・都市發展의 결정적 기여를 강조하던 論者 자신들도 근래에 와서는 農業剩餘의 중요성을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에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⁵⁷⁾

물론 이러한 現象만 하더라도 後進國經濟發展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반갑고 進展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論議조차도 農業開發의 문제를 持續的인 成長의 維持라는 觀點에서 다루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指摘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後進國의 經濟發展은 成長의 계속이라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 不利하게 안고 있는 初期條件을 극복함으로써 自立經濟構造를 확립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農業開發을 통한 農工均衡發展은 後進國의 初期條件와 관련하여 보다 構造的인 觀點에서 그意義가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2. 初期條件과 農工均衡發展

이제 後進國經濟發展의 初期條件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後進國의 初期條件에 비추어 農工均衡發展은 어떠한 意義를 가지며 또 發展戰略에 있어서 合當한 것

(54) Yuijiro Hayami & Vernon W. Ruttan, *Agricultur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Johns Hopkins Press, 1971.

(55) 이 모델의 內容의 骨格은 農業技術의 進步에 있어서는 農業에 있어 기본을 이루는 土地와 勞動 두 生產要素의 相對的 賦存 및 蓄積狀態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要因이며, 이 두 生產要素의 상대적 稀少性에 따라 새로운 投入要素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技術進步는 勞動節約 내지 土地節約의 方向으로 유도된다는 것이다.

(56) Erik Thorbecke ed., *The Role of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69, p. 3.

(57) 鄭英一教授의 Y. Hayami & V.W., Ruttan, *op cit.*에 대한 書評(『經濟論集』, 前揭號, p. 173).

인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後進國은 植民地的 經濟構造와 先進國에 둘러싸인 發展에 不利한 國際環境을 그 初期條件으로 하고 있다. 植民地支配는 經濟를 전반적으로 낮은 水準에 둑어 두고 跛行的인 構造를 遺產으로 남겨 놓았다. 그 가운데서도 農業은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部門이면서도 過剩人口, 儞裝失業, 經營規模의 零細性 등으로 生產力이 극도로 낮을 뿐만아니라 封建的 小作制度가 온존하고 있는 가장 落後된 部門이다. 따라서 農業開發을 도와시하고서는 後進國의 經濟發展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바탕위에 工業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으며 工業에 의한 成長을 추진하게 되면 經濟의 二重構造을 深化시킬 뿐 植民地構造는 더욱 溫存・強化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이다. 後進國의 自立的 經濟發展이라는 것은 이러한 初期條件의 克服過程이어야 함은 이미 서술한 바 있거니와, 이 過程은 農業開發을 기초로 하여 農業生產力의 提高에 의해 剩餘가 創出되어 工業部門으로 引入되고 다시 農工의 相互作用으로 國內分業에 관련자워진 產業間의 均衡發展이 이루어짐으로써 自律的 再生産構造가 확립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렇게 볼 때 農工均衡發展은 바로 自立經濟의 길이며 初期條件의 克服이라는 觀點에서 核心的인 意義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論理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연 體系를 달리하는 技術의 利用, 혹은 適合한 技術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技術의 導入에 앞서 農業制度의 改革을 통한 初期條件의 克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改革은 生產力向上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며 연후에 技術開發 및 技術適用이 이루어짐으로써 生產力向上이 더욱 加速化되는 것이다. 뒤르달은 「後進國에 있어 生產力水準의 提高라는 신천적 問題가 제기될 때에도 農地改革은 일반적으로 關心을 끌지 못했다」⁽⁵⁸⁾ 고 지적하고 「急進的인 改革의 必要性」⁽⁵⁹⁾ 으로서 農地改革을 소리높여 주장하면서 「農業改革은 農地擴張, 有利한 資金 및 肥料의 供給, 種子 및 기타 農機具의 보급, 農產物市場의 改善 등을 포함한 여러 補完的인 制度改革에 의해 補完되어야 한다」⁽⁶⁰⁾ 고 하였다. 한편 經濟史家인 大塚久雄도 二次大戰直後「世界史的으로 볼 때, 확실히 土地改革=農民解放은 近代社會(近代生產力)의 建設에 있어 社會的 礎石이며 또한 歷史的 起動力이 된다. 換言하자면 어떤 밟고 부유한 近代社會(=近代生產力)가 역사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農民解放은 반드시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적인 共通點이다. 즉 역사상 항상 農民解放이 달성되는 데서 비롯하여——아마 여기에는 일시적인 混亂이 발생하기

(58) G. Myrdal, *op cit.*, p. 117.

(59) *Ibid.*, Part II.

(60) *Ibid.*, p. 105.

도 하겠지만——밝고 부유한 近代社會 (=近代生產力) 形成의 가능성에 생겨난다는 것이다」⁽⁶¹⁾라고 하여 農地改革이 發展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날 後進國이 대단히 不利한 國際的인 與件에 놓여 있다는 後者의 初期條件에 비추어 보아도 農工均衡發展의 意義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戰後 世界經濟의 再編成으로 新殖民地主義의 關係를 否定하기 힘든 先後進國의 關係에서 後進國은 과거 先進國이 外國貿易을 통하여 發展의 推進力を 마련한 것과 같은 것을 전연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貿易은 「成長의 엔진」으로서는 흑作用할 지 모르나 「發展의 엔진」으로서는 그 역할이 기대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後進國으로 하여금 不利한 農業에 特化하든지 아니면 國內의 分業이나 生產基盤과는 전연 유리된 상태에서 輕工業中心의 加工輸出段階에 머무르게 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條件下에서 권고 혹은 요구되는 先進國에 의한 後進國의 工業化에 의한 成長의 論理는 先進國 再生產構造의 擴大 및 安定의 일환으로 현실적으로는 後進國經濟의 先進國經濟에의 從屬 및 隸屬으로 귀착될 것이다. 이는 다시 後進國이 經濟發展에 있어 克服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初期條件 즉 構造的矛盾을 더욱 深化시켜 對外依存과 不平等을 定着시키는 方向으로 作用하게 된다. 이것은 後進國經濟의 自立的 發展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後進國은 이러한 經濟의 對外依存化를 방지한다는 면에서도 農業과 工業이 상호 연관을 갖고 서로 균등하게 발전함으로써 國內分業에 기초한 진전한 生產構造를 확립하게 하는 農工均衡發展을 도모하여야만 할 것이다. 農工均衡發展은 또 다시 이러한 不利한 國際環境이라는 初期條件를 克服하는 힘으로 作用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곧 先進國의 利害에 입각한 外向的 工業化的 論理를 거부하는 內包的 經濟發展 즉 自立經濟發展의 礎石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앞에서 스스로 제기한 물음에 모두 긍정적으로 答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農工均衡發展은 오늘날 後進國經濟發展에 있어서 初期條件의 克服을 통한 自立經濟의 확립에 자대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며, 農工의 相乘作用은 經濟를 더욱 전진화·균형화시키고 社會를 平等化시킬 뿐만 아니라 經濟의 對外依存을 防止하는 後進國의 唯一한 發展戰略인 것이다.

3. 經濟發展과 農工均衡發展

農工均衡發展이 經濟發展의 理想型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自立的 經濟發展을 成就한 先進國의 經驗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으로 그들의 產業革命의 과정도 사실은 農工均衡發展의 산歴史이며⁽⁶²⁾ 오늘날 그들의 經濟成長이라는 것도 農工均衡發展을 떠나서는

(61) 大塚久雄, 『近代化の人間の基礎』, 筑摩書房, 1968, p. 197.

(62) 金宗炫, 前揭論文, pp. 9-11, pp. 16-8, pp. 26-9, 특히 pp. 35-7.

생각할 수 없다. 또한 理論的으로도 工業成長一邊倒에서 農業發展 및 그相互作用에로의 關心의 變化를 보이고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農工均衡發展을 새삼스러이 강조하는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말할 것도 없이 二次大戰後 先進工業國의 論理下에서 이루어진 後進國의 工業化(사실은 輕工業化)의 成長政策이 낳은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한反省으로부터 비롯된 後進國經濟의 自立的 發展이라는 문제의 再認識에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農業開發을 重視하는 理論에 있어서도 近代經濟學者들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工業成長에 따른 隘路部門의 出現과 이를 解決하기 위한 데서부터 비롯한 느낌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農工均衡發展에 대한 態度는 限界的・技術的 分析에 그치고 初期條件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도 은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農工均衡發展의 문제인식은 여기에서 그쳐서는 결코 안되어 後進國 자신의 입장에서 自立經濟構造의 화립이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때까지 工業成長 위주의 政策은 後進國에 있어서 既存產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農業部門의 상대적인 地位와 規模의 지속적인 하락을 가져왔으며 農業生產力도 매우 낮은 수준에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工業化의 부산물」이나 「經濟發展過程에 있어서의 農業의 특수성」이라는 평면적인 차원⁽⁶³⁾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國內分業의 상호관련하의 自己完結的인 自立經濟의 無視 내지는 破壞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된 外向的 工業화의 필연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先進工業國의 利害에서 비롯된 대부분 後進國의 外向的 工業化는 資本, 原料, 技術은 물론 價格, 市場, 運送까지도 先進國에 의해 공급되고 지배되는, 사실상 消費財工業의 加工段階의 量的 擴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工業成長의 國내공급효과는 커녕 國民經濟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가운데 消費財工業만이 무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農業과 工業은 점점 더 그 斷絕의 度가 심해가기에 이르렀다. 이는 또 消費財工業의 擴張과 병행하여 食糧을 先進國의 剩餘農產物에 의존하고 工業原料產業이 順逐되어 온 데서도 무렸이 부각된다.⁽⁶⁴⁾ 이러한 與件下에서 農業部門이나 國內의 구매력은 이와 같은 소망스럽지 못한 方向에 아무런 矯正役割도 하지 못하고 農工

(63) 이러한 견해는 그 原因을 食糧需要의 所得彈力성이 1보다 작고 또한 계속 작아지고 있으며, 工業部門의 技術進步로 工產品의 生產 및 運送費用이 절감된 데서 발생하는 相對的인 地位下落 등 기술적・한계적인 데서 찾고 있다. 「新發展經濟者」로 간주하고 있는 Johnston과 Mellor도 마찬가지이다(B.F. Johnston & J.W. Mellor "The Role of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61.)

(64) 韓國의 경우를 보더라도 食糧自給體系의 파괴와, 編紡織工業의 범립과는 반대로 棉花生產의 도태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隔差와 不平等이 더욱 深化되어 결국 國民經濟는 더욱 더 對外依存的인 것으로 되고 마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바탕이 확고하게 되면 國民經濟의 循環을 영위시키는 방법은 工業成長의 가속화로 必要한 食糧과 原料를 획득할 수 있을 만큼의 工產物生產의 擴張을 피하는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消費財工產物에 대한 海外需要의 한계로 벽에 부딪치게 되면 여전히 對外依存의이고 海外市場에 근거를 둔 重工業으로의 전환이라는 要求가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 重工業화가 추진된다. 오늘날 상당수 後進國의 重工業화라는 課題도 사실은 이러한 成長의 論理에서 나온 것임을 看過하여서는 안될 것이다.⁽⁶⁵⁾ 그런데 消費財工業의 加速의 擴張이 든 혹은 重工業으로의 轉換이 든 간에 이것마저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海外로부터의 生產諸要素와 결합되는 거의 유일한 國內 生產要素인 勞動이 低賃金이라는 여전히 有利한 條件下에서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成長을 추구하더라도 無制限의 勞動供給의 상태는 항상 지속될 수는 없으며 또한 要求되는 勞動의 質도 이전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렇듯 「外延的 成長源」(extensive sources of growth)의 隘路部門이 이때까지 勞動供給의 源泉이었던 農業部門에서 발생함에 따라 關心이 農業部門에도 미치게 되고 「內包的 成長源」(intensive sources of growth)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에서 農業部門에서의 技術進步를 중요시하게 되고 이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教育, 研究所 및 試驗場에 대한 公共部門의 投資를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 這間의 理論展開推移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된다.⁽⁶⁶⁾ 後進國經濟發展에 있어서 農工均衡發展의 중요성은 이와 같이 이때까지의 成長을 그대로 지속시키기 위한 필요에서가 아니라 이때까지의 發展沮害의인 成長이 결과한 國民經濟構造의 歪曲을 시정시키는 重要因子로서 作用시키기 위해서, 말할 것도 없이 自立的 經濟構造의 확립을 위해 必要不可缺하다는 構造的인 側面에 있음은 이미 叙上한 바와 같다.

로스토우(W.W. Rostow)도 農業生產性의 向上을 통한 農業開發이 ① 食糧增產을 통한 食糧輸入에 支出될 外貨의 節約 혹은 農產物輸出을 통한 外貨의 供給 ② 農業所得의 증가를 통한 國內市場擴大 ③ 農業所得의 租稅吸收를 통한 資本形成 등을 가져와 工業部門에도 플리스의 效果를 준다는 점을 들어 工業化的 先行條件으로서 農業의 役割을 강조하고 있다.⁽⁶⁷⁾ 물론 이는 跳躍段階 및 그 이후의 구조적인 農工均衡發展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65) 따라서 이러한 性格의 重工業化는 둘이 말하는 「重工業優先에 의한 民族經濟의 自立的發展」과는 전연 向方을 달리한다. 이는 經濟의 隸屬化를 深化시킬 뿐이다. M. Dobb, *Papers on Capitalism, Development and Planning*, Routledge & Kegan Paul, 1966, Chap. 4.

(66) III의 1.에서 본 古典派 및 新古典派, 그리고 「新發展經濟學者」로 불리우는 學者들의 農業開發論은 모두 이에 속한다.

(67) W.W. Rostow, *op. cit.*, pp. 22-3.

農業과 工業이 서로 發展的인 作用을 한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後進國經濟發展에 있어서 農業의 중요성은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農業의 役割」이라는 법주내에서 고찰되어 왔다. 즉 農業은 ① 食糧供給 및 ② 勞動力供給의 원천이 되며 ③ 적으나마 資本形成의 역할을 하고 ④ 工產品에 대한 市場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⑤ 農產物輸入節減을 통한 外貨의 절약 및 農產物輸出을 통한 外貨의 獲得도 가능하다는 것이다.⁽⁶⁸⁾ 확실히 이러한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農業開發을 통하여 農業生產이 증대되고 生產性이 向上됨에 따라 이러한 역할의 규모와 비중도 증가할 것이 틀림없다. 그중에서도 農業開發은 資本財로서 工產品의 需要를 증대시킴은 물론 農業所得의 증가는 消費財工業의 成長도 뒷받침한다. 이러한 農業의 역할은 나아가서 經濟의 對外依存度를 낮추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밀한前提가 필요하다. 그것은 農業과 工業이 相互關聯下에서 그地位가 대등하게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兩者的 지위를 대등하게 놓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工業成長의 애로부문을 타개하기 위한 農業의 補助的・補完的 역할을 강조한 論議로 보인다. 이러한 補助的 地位에서는 農業開發이라는 것은 既存의 外向的 工業化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對外依存을 加速화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따라서 後進國經濟發展에 있어서 農業의 중요성은 이러한 視角에서 가 아니라 이때까지의 잘못된 外向的 工業成長의 論理를 부정하는 態度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經濟發展의 初期段階에서 주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成長過程中에서도 方向矯正의 역할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過程中에서 실현시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初期條件의 困局이라는 관점에서 發展의 初期段階에서부터 農業開發이 이루어져야만 後進國의 經濟發展은 自立經濟의 確立이라는 길로 진행 할 수 있는 것이다.⁽⁶⁹⁾

이렇게 말하고 보면 農工均衡發展에 있어 農業만이 一方的으로 강조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의 工業成長一邊倒의 지배적인 경향을 중점적으로 비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工業部門 역시 農業部門에 技術을 제공하고 原料材 農產物의 市場을 제공하는 등의 점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임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農

(68) D.S. Thorton,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May 1973, pp. 227-36; B.F. Johnston & J.W. Mellor, *op. cit.*, pp. 364-74.

(69) 農業開發의 중요성은 단지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役割만으로 국한시켜 생각할 것은 아니다. 農業은 工業과의 관계에서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農業生產物이 食糧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중요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食糧으로서의 農產物의 代替財는 存在하고 있지만 그 代替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며 代替彈力성이 반드시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점은 食糧危機가 논의되는 現在에 있어서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工均衡發展은 發展의 初期에서부터 農業과 工業이 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國內分業에 기초한 自立的 經濟構造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經濟發展과 農工均衡發展에 있어 注意를 요하는 것은 農工均衡發展이 工業依存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農業依存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農產物과 工產物의 產出物의 比率이 항상一定하게 유지되는 均衡成長모델⁽⁷⁰⁾의 응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農工均衡發展은 量的 인 分析모델이 아니라 構造的이고 質的인 發展形態이다. 兩產業間에 資源을 어떻게 配分하며 產出物의 比率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經濟의 構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要因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各國의 事情에 맞게 決定되어야 할 것이지만 本稿에서 다루는 문제와는 次元을 달리한다. 또 農工均衡發展을 오늘날 後進國의 發展戰略으로 하는데 대하여 初期條件와 관련하여 과거 先進國의 發展初와는 그 初期條件이 다르기 때문에困難한 것이 아닌가라는 疑問이 提起될 수도 있다. 앞서 紹介한 金宗炫教授의 論文에 의하면 先進工業國의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共通點은 農工均衡發展과 輕工業에 이은 重工業의 繼起的인 工業化라고 할 수 있는데⁽⁷¹⁾ 우리가 相異한 條件에 따른 相異한 發展戰略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後者 즉 輕工業優先에 대한 同時發展이어야지 農工不均衡發展은 아니다. 왜냐하면 自立經濟의 戰略으로서 農工均衡發展은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當爲的인 成就目標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農工均衡發展은 成長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發展의 관점에서, 限界的・技術的 차원에서 成長過程中의 矯正者로서보다는 發展方向을 결정하고 國民經濟의 自立的 發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發展初期段階에서부터 戰略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農工均衡發展이라는 것은 經濟發展에서 工業과 마찬가지로 農業도 發展初期부터 戰略產業으로 삼고 계속 發展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農業潛在力의 發現을 통한 工業化 및 農業과 工業의 相乘作用에 의한 經濟의 發展이라는自己完結的 發展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初期條件의 극복으로서의 構造改革이 요청된다.

IV. 結語

한 國家가 經濟發展을 해 나가는데 있어 그 國家가 가지고 있는 初期條件은 發展의 方向이나 戰略, 그리고 發展의 全過程에 있어 매우 重要한 要因으로 作用한다. 따라서 經濟發

(70) 예를 들면 보오물의 均衡成長모델이 여기에 속한다. W. Baumol,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An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7.

(71) 金宗炫, 前揭論文, p. 39.

展은 구체적인 初期條件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야만 目標達成이 가능하다. 오늘날 後進國經濟發展의 궁극적인 目標는 自立的 再生產構造의 확립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처한 狀況은 반드시 同一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多樣性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相互의 共通性을 중심으로 하여 주어진 初期條件를 一般化함으로써 同一한 經濟發展의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發展戰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後進國經濟發展에 있어 가장 核心的인 初期條件으로서 跛行的인 植民地的 經濟構造와, 後進國을 그들의 再生產構造내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先進國들로 둘러싸인 戰後의 世界經濟構造를 後進國一般에서 도출하였다. 이兩者는 흔히 지적되는 資本不足, 所得水準의 低位, 市場의 未發達, 낮은 貯蓄 등과 같은 悲觀論에 근거를 둔 現象的인 條件이나 經濟發展段階의 低位라고 하는 막연하고 그러면서도 無分別한 樂觀論에 바탕을 가진 平面的인 條件과는 달리 歷史的・社會經濟的인 條件으로 構造的으로 파악된 것으로서 發展論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모두가 不利한 條件이며, 따라서 後進國은 經濟發展에 있어 이러한 初期條件를 擴大・延長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克服 및 改革의 대상으로 삼아야함이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後進國의 經濟發展은 初期條件의 克服을 통한 自立經濟確立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二次大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後進國의 經濟는 輕工業을 중심으로 한 外向的 工業化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는 先進國의 利害에 기초를 둔 論理의 適用으로, 이로 말미암아 後進國은 農業이 위축되고 工業도 加工段階에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工業成長의 論理의 歸結點은 對內的인 不平等과 對外依存의 뿐이다. 즉 이는 後進國에 있어 植民地的 經濟構造를 溫存強化하고 後進國經濟를 先進國에의 從屬으로 이끄는 것으로 自立經濟와는 반대의 方向으로 誘導하였다. 이러한 과거경험을 통한 反省으로부터 後進國은 자신의 論理에 입각한 새로운 發展戰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볼 때 後進國의 經濟發展은 先進國의 成長論理를 부정하고 後進國에 적합한 發展論理를 수립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後進國이 처한 條件을 고려할 때 後進國의 진정한 經濟發展戰略은 農工均衡發展임을 우리는 알았다. 農工均衡發展은 工業이나 農業依存이 아니라 兩者的 潛在力의 發現을 發展의 出發點으로 삼고 그 相乘作用에 의거함으로써 國內分業에 기초한 自律的 再生產構造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이는 後進國의 不利한 初期條件를 극복하고 經濟構造를 건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效率性도 提高되는, 말하자면 自立經濟의 길이다. 이는 단순히 量的의 意義에서 兩產業의 產出物比率의 均等化가 아니라 質的이고 構造的인 發展戰略이다. 이미 自立經濟를

成就한 先進國의 과거 예를 보더라도 農工均衡發展은 그 正當性이 인정된다. 農工均衡發展은 이렇게 볼 때 自立經濟를 위해 通歷史的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方法은 初期條件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農工均衡發展이 아밀로 後進國이 初期條件을 극복하고 經濟發展의 궁극적인 目標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發展戰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與件에 놓여 있는 後進國에 개별적으로 適用될 때는 역시 그 구체적인 條件에 따라 發展戰術이 採擇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參 考 文 獻

- [1] 金宗炫, 『英國產業革命研究』, 서울大學校經濟研究所, 1977.
- [2] ———, 「工業化의 諸條件와 戰略에 관한 比較史的研究」, 『經濟論集』, 1971年 6月.
- [3] 朴玄塚, 「階層調和의 條件」, 『政經研究』, 1969年 11月.
- [4] 邊衡尹, 「民族革命型開發政策에 의 轉換」, 『政經研究』, 1971年 12月
- [5] 劉甲壽, 『後進國經濟發展論』, 日新社, 1969.
- [6] 李槿哲, 「經濟發展과 農業에 관한 考察」, 『經濟論集』, 1974年 9月.
- [7] 李碩峯, 『經濟發展의 理論』, 法文社, 1968.
- [8] 李賢宰, 金秀行 譯編, 『經濟發展論』, 서울大學校出版部, 1968.
- [9] 趙容範, 「低開發國近代化의 經濟의 内容과 國民經濟의 自立化」, 『友石文理大法經大論集』, 第二·三合輯, 1969.
- [10] Myrdal, G.K.,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Duckworth, 1957.
- [11] ———, *The Challenge of World Poverty: A World Anti-Poverty Program in Outline*, Patheon Books, 1970.
- [12] ———, *An International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Harper & Row, 1956.
- [13] ———,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Twentieth Century and Patheon Books, 1918.
- [14] Dobb, M.H., *Some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Three Lectures*, (Occasional Papers No.3, Dehli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Dehli, 2nd ed., 1955; 日譯書(小野一一郎 譯, 『後進國の經濟發展と經濟機構』, 有斐閣, 第5刷, 1961).
- [15] ———, *An Essay on Economic Growth and Planning*, Routledge & Kegan Paul, 1960.
- [16] ———, *Papers on Capitalism, Development and Planning*, Routledge & Kegan Paul,

1966.

- [17] Baran, P.A.,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Monthly Review Press, 1957.
- [18] Bettelheim, C., *Problemes theoriques et pratiques de la planification*: 日譯書(奧澤篤次郎, 『經濟計劃の理論』, 東洋經濟新報社, 1956).
- [19] Rostow, W. 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o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 [20] Leibenstein, H.,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sh*, New York, 1957.
- [21] Higgins B., *Economic Development: Principles, Problems and Policies*, W.N. Norton & Co., 1956.
- [22] Hagen, E.E., *The Economics of Development*, Richard D. Irwin Inc., 7th printing, 1972.
- [23] Gerschenkron, A.,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Frederick A. Praeger Inc., 1962.
- [24] Hirschmn, A.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1961.
- [25] Myint, H., *The Economic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Hutchison of London 1964.
- [26] Nurkse, R.,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asil Blackwell, 5th ed., 1957.
- [27] Boeke, J.H., *The Interests of the Voiceless Far East: Introduction to Oriental Economics*, 1948.
- [28] ——— *Economics and Economic Policy of Dual Societies*, New York, 1953.
- [29] Frankel, S.H., *The Economic Impact on Underdeveloped Societies: Essay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Social Change*, Oxford, 1953.
- [30] Furnivall, J.S.,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1939,
- [31] Cairncross, A.K., *Factor in Economic Development*, George Allen & Unwin, 1962.
- [32]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Structure: Selected Essays*, 1965.
- [33] ———,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55.
- [34] Lewis, W.A.,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George Allen & Unwin, 1955.
- [35] ———,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reprinted in IER,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Development*, 1965.
- [36] Neher, P., *Economic Growth &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Inc., 1971.
- [37] Hayami, Y., & V.W. Ruttan, *Agricultur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Johns Hopkins Press, 1971.

- [38] Thorbecke, E., ed., *The Role of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69.
- [39] Dean, P.,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Cambridge, 1965.
- [40] Ashton, T.S.,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9-1830*, 1948.
- [41] Toynbee, A., *The Industrial Revolution*, Bacon Press, 1968.
- [42] Habakkuk, H.J., & M.M. Postan eds.,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VI., Cambridge, 1965.
- [43] Friedrich, K., *International Economics*, McGraw-Hill, 1974.
- [44] Dunning, J., ed., *Economic Analysis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Praeger Publishers, 1974.
- [45] Kenwood, A., & A. Lougheed, *The Growth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1820-1960*, George Allen & Unwin, 1971.
- [46] Viner, J.,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 [47] ——— “Economics of Development”, reprinted in A.N. Agarwala, & S.P. Singh, eds.,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48] Wolf, C., “Instit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December 1955.
- [49] Meier, G.M., “The Problem of Unlimited Economic Development,” reprinted in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ment*.
- [50] Fei J.C.H., & Ranis, G.,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61.
- [51] ——— “Innovation, Capital Form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3.
- [52] ——— “Agrarian Du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in I. Adelman & E. Thorbecke, eds., *The Theory and Design of Economic Development*, 1966.
- [53] Baumol, W.,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An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7,
- [54] Jorgenson, D.W., “The Development of a Dual Economy,” *Economic Journal*, June 1961.
- [55] Johnston, B.F., & J.W. Mellor, “The Role of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61.

- [56] Thorton, D.S.,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May 1973.
- [57]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 [58] Gruber, W. D., D. Mehta, & R. Vernon, "The R & D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of United States Indus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February 1967.
- [59] Haufbauer, G.C., "The Impact of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y on the Commodity Composition of Trade in Manufactured Goods," in *The Technology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0.
- [60] 大内兵衛・内坂逸郎,『現代の世界經濟と國際關係』,河出書房, 1971.
- [61] 尾崎彥朔 編著,『低開發國政治經濟論』,ミネルヴァ書房, 1968.
- [62] 松井清,『戰後の世界經濟』,日本經濟評論社, 1969.
- [63] 松井清編,『後進國開發理論の研究』,有斐閣, 1962.
- [64] 世界經濟調査會刊,『後進國開發の研究』,世界經濟調査會, 1964.
- [65] 小段文一,『低開發國工業化論』,東洋經濟新報社, 1975.
- [66] ———,「後進國貿易の停滞要因とその展望」,『世界經濟評論』,1961年 6月號
- [67] 大塚久雄,『近代化の人間的基礎』,筑摩書房, 1968.
- [68] 大塚久雄編,『後進資本主義の展開過程』,アジア經濟研究所, 1973.
- [69] 森田桐郎,『南北問題』,日本評論社, 1968.
- [70] 岡倉古志郎,『アジア・アフリカ問題入門』,岩波書店, 1967.
- [71] 岡倉古志郎・蠟山芳郎 編著,『新植民地主義』,岩波書店, 1964.
- [72] 坂本二郎,『低開發國開發理論の系譜』,アジア經濟研究所, 1968.
- [73] 坂垣與一,「後進國開發理論の問題意識」,『一橋論叢』,1955年 2月號.